

2020 행정법 포럼 성과보고 - 행정법 혁신과 나아갈 미래 -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는 2020년 10월 30일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행정법 혁신과 나아갈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행정기본법에 대한 논의와 개별 행정법과 기본법과의 관계 및 행정법에 대한 주요 이슈에 대하여 여러 관, 학, 연 소속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담론을 펼쳤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김영일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기획평가팀 행정원
✉ ducakim01@klri.re.kr

2019년 7월 4일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처 및 행정법 관련 8개 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처음으로 부처, 연구원, 행정법관련 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행정법의 이슈에 대한 논의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당시 행정법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작년에 이어 행정법 포럼이라는 명칭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당초 8월에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방역 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포럼 개최가 잠시 보류되었다가 다시 1단계로 전환되어 10월 30일에 개최하였다.

2020 행정법 포럼은 “행정법 혁신과 나아갈 미래”라는 주제로 주최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를 비롯하여 행정법 관련 7개 학회¹⁾가 참여하였다. 이번 포럼의 개최식에는 이강섭 법제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와 백혜련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의 축사가 이어졌다. 개최식이 끝나고 “행정기본법” 국회 제출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의 의미”라는 주제로 홍정선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장(前 연세대학교 교수)이 기조발제를 하였다. 홍정선 위원장은 「행정기본법(안)」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하고, 주요 내용과 입안 단계별로 조문 구성을 비교하며 법안의 필



2020 행정법 포럼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학설과 판례, 실정법에 적용되고 있는 내용들을 담아내고,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성문화하며, 여러 개별 행정법에 기술되어 있는 제도(인허가의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에 대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기초발제가 끝나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박군성 교수(경희대), 김익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상덕 부장판사(대법원), 이재영 입법조사관(국회), 박철우 변호사(대한상공회의소)가 지정토론에 참여하였다.

오후에는 총 12개의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회의가 5개 세션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었다. 행정기본법과 개별법령과의 관계, 행정법의 최근 주요 이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1세션은 한국행정법학회에서 주관하였다. 이현수 교수(건국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행정기본법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뒤를 이어 김대인 교수(이화여대)가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

찰”이란 주제로 이야기 하였다. 제2세션은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한국비교공법학회가 공동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주제로 정호경 교수(한양대)가 “행정기본법의 주요쟁점-행정작용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제2주제로는 이재훈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행정기본법(안)의 신고 조항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제3세션은 한국환경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먼저 이순자 연구교수(고려대)가 “CCUS와 탄소배출거래제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다음으로 박기령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그린뉴딜의 이행을 위한 녹색성장법 재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4세션은 한국국가법학회와 한국지방자치법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제1주제로 유진식 교수(전북대)가 “행정기본법(안)의 검토-행정법의 법전화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제2주제로 박정연 교수(한경대)가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규제에 관한 최근 이슈와 행정법적 단상(斷想): 세네릭 의약품 생동성 시험과 약가조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3주제는 최봉석 교수(동국대)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5세션은 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 주관하였고,

총 3개의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고인석 교수(호서대)가 “행정기본법상 일반원칙과 토지행정법상 일반원칙 비교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두 번째는 조인성 교수(한남대)가 “행정기본법(안)상 인허가 의제제도와 토지행정법상 인허가 의제제도 비교분석”이란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김동련 교수(신안산대)가 “행정기본법상 행정구역 획정 논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각 세션별로 발표와 토론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한국법제연구원 공식 유튜브 계정에 게시하였다.

2부 학술회의가 끝난 후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행정기본법(안)에 대한 방향과 행정법의 혁신에 대해 자유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행정법학회장인 박정훈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고, 6명의 학회장이 강평을 하였고, 청중 자유토론을 끝으로 2020 행정법 포럼을 마무리 하였다.

이 날 90여 명의 참석자가 모여 행정법 혁신과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